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동아시아와 유럽의 장기요양정책 관련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 과제명

- 비예산 과제

□ 출장기간

- 2025.03.25.(화) ~ 2025.03.29.(토)

□ 출장국가(도시)

- 대만(타이베이)

□ 출장자

- 김유휘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3월 25일	대만(타이베이)	-	-	출국
3월 26일	대만(타이베이)	National Taiwan University	Simone Leiber 교수(독일), Li-Fang Liang(대만), Reiko Ogawa 교수(일본) 외	동아시아와 유럽의 장기요양정책 관련 Conference 참석
3월 27일	대만(타이베이)	WiSmart Convention Center	Simone Leiber 교수(독일), Li-Fang Liang(대만), Reiko Ogawa 교수(일본) 외	동아시아와 유럽의 장기요양정책 관련 Workshop 참석(포스터 발표 토론, 소그룹 토론)
3월 28일	대만(타이베이)	WiSmart Convention Center/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	Simone Leiber 교수(독일), Li-Fang Liang(대만), Reiko Ogawa 교수(일본) 외	동아시아와 유럽의 장기요양정책 관련 Workshop 참석(소그룹 토론, NGO 방문)
3월 29일	대만(타이베이)	-	-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출국
일 시	2025.03.25.(화)
장 소	대한민국(인천) 출발, 대만(타이베이) 도착
②	국제 컨퍼런스 “Long-Term Care Policies in East Asia and Europe: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Policy Options”
일 시	2025.03.26.(수) 9:00 ~ 17:00
장 소	대만 타이베이(National Taiwan University)
참석자	Simone Leiber(University of Duisburg-Essen, 독일), Li-Fang Liang(National Dong-Hwa University, 대만), Reiko Ogawa(Chiba University, 일본) 외

□ 컨퍼런스 목적

-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장기요양 정책을 비교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만 사회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돌봄을 국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돌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고자 함.

□ 컨퍼런스 구성

구분		주제 및 발표자	좌장
8:40-9:00	등록		
9:00-9:1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ueh-Ching Chou (TW), President, Taiwan Society for Care Research • Chi-Hung Lin, President, National Yang Ming Chiao Tung University • Simone Leiber (GE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 Jen-Der Lue, Deputy 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huu-Jiun Wang (TW), Dean, College of Medicine, National Yang Ming Chiao Tung University 	
9:10-10:40	세션 1	<p>〈Long-Term Care Challeng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East Asian Contex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ito Yayoi (JAP),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Osaka University • Hongsoo Kim (SK),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ieh-hsiu Liu (TW), Department of Geriatrics and Gerontology,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wan 	Jen-Der Lue, Deputy 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구분		주제 및 발표자	좌장
10:40-11:00	휴식		
11:00-12:30	세션 2	<p>Long-Term Care Challeng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European Contex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nca van Hooren (NL): Faculty of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University of Amsterdam • August Österle (AT)(online): University Professor for Social Policy at WU Vienna • Stefan Greß (GER): Programme Director Health Economics and Polic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Fulda 	Johanna Fischer (GER), SOCIUM Research Center on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Bremen
12:30-13:30	점심		
13:30-15:00	세션 3	<p>Long-Term Care and Migrant Care Labour</p> <p>(발표1) Live-in migrant care in Austria, Germany and Taiwan: a comparis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one Leiber (GE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 Li-Fang Liang (TW),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Dong-Hwa University • Migyeong Yun (GER, SK), SOCIUM Research Center on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Bremen <p>(발표2) Marketization of care and the deregulation of migration regime in Ja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iko Ogawa (JAP),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Chiba University <p>(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ldegard Theobald (GER), Department of Organizational Gerontology, University Vechta • Yuhwi Kim (SK),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ffairs 	Davide Viero (GER), Faculty of Educational Sciences, University of Duisburg-Essen
15:00-15:20	휴식		
15:20-16:50	라운드테이블	<p>Possible Reform of Long-term Care Policies: Challenges, Integration and Future Direc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en-Fang Chu (TW), Director, Department of Long-Term c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Yu-Rung Chin (TW), The Awakening Foundation • Shao-Fen Lee (TW),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National Yang-Ming Chiao-Tung University • Heinz Rothgang (Researcher, GER), Health, Long-Term Care and Pensions, University of Bremen • Yayoi Saito (JAP),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Osaka University • Yongho Chon (S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Yi-Chun Chou (TW), Department of Sociology, Soochow University
16:50-17:00	폐회		

□ 세션별 주요 내용

<세션 1> Long-Term Care Challeng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East Asian Context (장기요양의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 동아시아의 맥락)

- (발표 1) Ha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ed to de-familialization? -- Marketization and re-familialization of eldercare in Japan (장기요양보험은 탈가족화에 기여했는가? - 일본 노인돌봄의 시장화와 재가족화)
 - 일본 장기요양보험은 도입된 지 25년이 경과하였으며, 가족의 노인 돌봄의 일부를 공공 서비스로 외부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전통적인 가족 돌봄 문화에 영향을 미쳤음.
 - 하지만 최근의 시장화 경향은 오히려 가족화의 재강화(re-familialization)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는 낮은 등급의 수급자에게 민간 가사도우미 서비스나 지역 자원봉사 기반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요양시설(quasi-facility)' 및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과 같은 신규 민간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한편, 저소득 노인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다시 가족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지역 단위의 24시간 돌봄 체계를 복유립 모델에서 착안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지역 사회 기반의 포괄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나, 돌봄 제공자 간의 수익성 높은 이용자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재정 및 인력 부족이 주요 도전과제임.
- (발표 2) Toward Sustainable and Integrated Long-Term Care in Korea: Challenges and Policy Innovations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한국 장기요양제도를 향하여: 과제와 정책 개선)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서비스 보장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재가 중심 서비스 전환 및 새로운 돌봄 접근 방식을 모색해 왔음.
 - 그러나 재정 지속가능성, 인력 부족, 돌봄 연계 미흡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
 - 이에 대해 보험료 조정,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정부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전략적 개편이 필요하며, 또한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간 통합을 강화하여 돌봄의 연속성과 조정체계를 개선해야 함.
 - 한편, AI,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등 첨단 솔루션을 활용하여 돌봄 품질을 높이고 가족 및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발표 3) Long-term care 'going public' in Taiwan's familialist welfare regime: trends, actors, and challenges (대만의 가족주의 복지레짐에서 장기요양의 '공공화' 경향: 동향, 행위자, 그리고 과제)
 - 대만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familialist) 복지레짐을 유지해왔으며, 노인 돌봄은 대부분 가족이 담당해왔음. 하지만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 가족 돌봄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2017년부터 장기요양체계(LTC 2.0)를 본격 도입함. LTC 2.0은 재가 중심

- 돌봄,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대상 확대, 민간·비영리 기관의 참여, 공공재정 확대를 특징으로 함.
- LTC 2.0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서 국가가 가족의 돌봄 책임을 분담하고 제도화 하는 ‘공공화(going public)’ 과정으로 해석됨.
- 다만 여전히 민간 위탁 중심의 구조, 서비스 제공의 지역 격차, 돌봄 인력 부족 등의 과제도 존재함.

<세션 2> Long-Term Care Challeng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European Context
(장기요양의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 유럽의 맥락)

○ (발표 1) Long-Term Care Challenge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과제와 정치적 기회)

-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공공 재정에 기반한 포괄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
- 전체 여성 노동자 중 약 8명 중 1명이 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네덜란드 출신이고, 이주 배경을 가진 종사자는 소수임. 시간당 임금은 유럽 평균보다 높지만, 대부분이 파트타임 근로자이며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돌봄 서비스의 과도한 수요와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혁은 비용 절감과 시장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로 인해 서비스 단편화, 공급자 간 경쟁 심화, 인력 부족, 대기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장기요양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 구조를 분석하면, 장기요양 정책에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목표가 경쟁하고 있음; ① 좋은 돌봄 제공, ② 비용 억제, ③ 이민 억제
- 그러나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는 현실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음. 현재 포퓰리즘 정부 하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주목됨.

○ (발표 2) Long-term care in Austria: How to ensure (equal) access to care? (오스트리아의 장기요양제도: 돌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오스트리아는 1993년부터 조세 기반의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
 - ① 전체 인구의 5.2%를 포괄하는 보편적 장기요양수당 제도
 - ② 공공 재정이 지원되는 재가 및 시설 사회서비스
 - ③ 비공식 돌봄자(가족 등)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지난 30년간 사회서비스 제공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이 주 돌봄제공자로 역할하고 있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주노동자에 의한 입주 방식의 돌봄(live-in care)이 비공식 경로 확산되었음.
- 2007년에는 이를 공식화하여 입주 방식의 이주 돌봄노동자(Live-In Migrant Care; 이하 LIMC)의 자영업 등록 및 소득 조사 기반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함.
- 현재 오스트리아의 장기요양제도는 돌봄 인력 공급 부족, 제도 재정 압박, 수요 증가로 인해 접근성

의 위험을 겪고 있으며, 발표는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들을 중심으로 논의함.

○ (발표 3) Long-Term Care Challeng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in Germany (독일 장기요양 제도의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Social LTCI)은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으며, 초창기 정책 목표는 ① 필요한 돌봄 비용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② 대상자가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고 보험에 기반한 권리로 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 하지만, 현재는 제도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이 목표들이 더 이상 달성되지 않고 있음.
- 돌봄 비용 증가 속도가 보험 보장 수준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보험으로 충당되는 서비스 범위가 줄어들고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의 이원적 구조에서 위험집단의 불균형(adverse selection)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보험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약화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적 재정 지출 증가를 동반함. 재정 확보 방안으로 조세 지원 확대, 보험료 체계 개편, 민간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또는 부담금 부과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세션 3〉 Long-Term Care and Migrant Care Labour

(장기요양제도와 이주노동)

○ (발표 1) The Politics of Live-In Care Mig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aiwan, Austria and Germany (입주 방식의 이주 돌봄노동의 정치: 대만, 오스트리아, 독일의 비교)

- 부유한 국가들이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국 출신 이주노동자를 개인 가정이나 장기 요양서비스에 배치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가족 중심 돌봄 문화가 강하고 비공식 돌봄의 비중이 높은 대만,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는 입주 방식의 이주 돌봄노동(LIMC)이 중요한 돌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LIMC는 돌봄 제공자가 수급자 가정에 거주하며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됨.
- 이 발표는 LIMC에 대한 정책 대응 또는 비대응의 정치적 차이를 세 국가 간 비교 분석함. LIMC를 규제하고 제도화하는 정책 형성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이해관계에 주목함.
- 세 국가 모두 LIMC의 노동권과 노동조건 보호가 부족함. 이에 대한 정치적 맥락과 이해관계자를 살펴보면, 대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권력 경쟁이 존재하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노동권이 주변화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독일은 정책적 리더십 부재하여 실질적인 제도화 시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발표 2) Marketization of care and the deregulation of migration regime in Japan (돌봄의 시장화와 일본 이주레짐의 규제 완화)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일본에서는 장기요양(개호) 영역의 돌봄 인력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로 나

타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장기요양(개호) 관련하여 2024년 기준 4개의 이주노동자 유입 경로가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 경로들은 통합적 이민정책에 기반하여 설계되지 않았으며, 유입 경로별 언어 요건, 교육 수준, 체류 자격, 개호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 등이 상이함.
 - ① EPA(경제협정), ② 개호학과 유학생, ③기술연수생(TITP), ④ 특정기능자(SSW)
- 한편,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시설 입소 기준 상향, 민간 요양시설 확대, 돌봄 책임의 재가축화 등이 나타남. 이는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 축소 및 돌봄의 시장화 경향으로 연결됨.
- 장기요양제도의 이주노동자 유입은 돌봄의 시장화와 가족화를 동시에 촉진시켜, 기존 공공성 원칙(사회화된 돌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없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음.

③	워크숍 “Long-Term Care Policies in East Asia and Europe - After-Conference Workshop” (1일차)										
일 시	2025.03.27.(목) 9:00 ~ 17:00										
장 소	대만 타이베이(WiSmart Convention Center)										
참석자	Simone Leiber(University of Duisburg-Essen, 독일), Li-Fang Liang(National Dong-Hwa University, 대만), Reiko Ogawa(Chiba University, 일본) 외										
<p><input type="checkbox"/> 워크숍 목적</p> <p>○ 장기요양정책, 돌봄의 이주노동, 치매 돌봄, 비공식 돌봄, 돌봄의 디지털화 등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 촉진하고 동아시아와 유럽 간 장기요양 분야의 국제 비교 및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워크숍 참여자</p> <p>○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40인의 연구자</p> <p><input type="checkbox"/> 워크숍(1일차) 구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활동</th> <th style="width: 30%;">좌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09:00-10:00</td> <td>개회 및 참석자 자기소개</td> <td>Yueh-Ching Chou (TW), Simone Leiber (G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11:10</td> <td>포스터 프레젠테이션</td> <td>Li-Fang Liang (TW)</td> </tr> </tbody> </table>			구분	활동	좌장	09:00-10:00	개회 및 참석자 자기소개	Yueh-Ching Chou (TW), Simone Leiber (GER)	10:00-11:10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Li-Fang Liang (TW)
구분	활동	좌장									
09:00-10:00	개회 및 참석자 자기소개	Yueh-Ching Chou (TW), Simone Leiber (GER)									
10:00-11:10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Li-Fang Liang (TW)									

구분	활동	좌장
11:10-11:30	휴식	
11:30-12:40	전체 토론 • 돌봄 연구 트렌드 • 향후 장기요양 연구 방향	Johanna Fischer (GER); Simone Leiber (GER)
12:40-14:00	점심	
14:00-15:20	소그룹 토론 • LTC policies • Care migration • Formal and informal care/well-being of caregivers • Digitalisation of care/care technologies	Johanna Fischer (GER); Simone Leiber (GER)
15:20-15:40	휴식	
15:40-17:00	전체 토론 • 소그룹별 토론 결과 발표 • 토론 및 요약	Johanna Fischer (GER); Simone Leiber (GER)

□ 워크숍(1일차) 주요 내용

○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목록

- Formalising Family Care: The Case of Employment Programmes in Austria (가족 돌봄의 제도화: 오스트리아의 고용 정책 사례)
- Global Dynamics of Long-Term Care Policy - Project Poster(장기요양정책의 세계적 동향 - 프로젝트 포스터)
- Long-term Care Leave in European Comparison (유럽 국가의 장기요양 휴가 제도 비교)
- Factorial survey experiments as a method to assess the factors influencing eligibility for LTC benefits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조사)
-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long-term care - Coalition building in the policy development of a care system in Uruguay (장기요양 분야 국제기구의 역할 - 우루과이 돌봄 시스템 정책 형성에서의 연합 형성)
- Navigating Dual Roles: Comparing Personal Assistance and Home Care Work Through a Human Rights and Feminist Care Ethics Lens (활동지원과 방문요양의 이중 역할 비교: 인권 및 페미니스트 돌봄윤리 관점에서)
- Diversity in the LTCI Service Provision System in Asia (아시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
- Why Taiwan Failed to Introduce Long-term Care Insurance (대만은 왜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실패했는가)
- Developing a public long-term care system in the context of a pre-existing market for

live-in migrant care work (LIMC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 장기요양제도 개발)

- From Hope to Disillusionment: Shaping the Indonesian Care Workers in the Pre-Departure Training (희망에서 환멸로: 인도네시아 돌봄 노동자의 출국 전 교육 경험)
- The limitation of Japan's strict recruitment system of migrant care workers and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일본의 엄격한 이주 돌봄노동자 모집 제도의 한계와 공동체의 중요성)
- Indonesian Live-In Migrant Care Workers' Perspectives on Taiwan's New Migration Policy (대만의 새로운 이주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LIMC 노동자의 시각)
- Care Poverty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Living with Severe Mental Health Conditions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중고령자의 돌봄 빈곤)
- Independent Living at Risk: Challenges of Substitute Care During Migrant Caregivers' Leave (독립 생활의 위기: LIMC 휴가 시 대체 돌봄의 과제)
-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Care Robots in Taiwan's Long-Term Care Institutions from a Capability Approach Perspective (역량 접근 관점에서 본 대만 장기요양기관의 돌봄로봇 활용 평가)

○ 소그룹 “Migrant Care”의 토론 내용

- 국가별 장기요양의 이주 돌봄노동자 현황 및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비교연구의 틀을 논의
- (독일) 공식 영역(요양시설 등)과 비공식 영역(개인 가정의 LIMC)에 모두 이주 돌봄노동자가 유입되어 있음. 이주 돌봄노동자의 체류자격, 출신국 등은 다양함.
- (대만) 장기요양제도(조세 기반)의 도입 이전부터 가정 내 돌봄에서 LIMC이 크게 활용되어 왔음.
 - 1990년대 초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LIMC 방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현재 가정 내 돌봄은 주로 LIMC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 가정 내 돌봄이라는 근거로 인해 LIMC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일본)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력 부족과 이주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설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유입 경로가 확대되었음.
 - 장기요양제도(보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주노동자(EPA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2020년 전후 일본의 이주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유입 가능한 경로가 확대되었음.
 - 2024년 기준 유입 경로: ① EPA(경제협정) 개호복지사 후보생(프로그램 기간 내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하도록 설계), ② 개호학과 유학생이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기술연수(TITP) 체류자격의 개호 분야 기술연수생, ④ 특정기능(SSW) 체류자격의 개호 분야 노동자
- (한국) 노인 돌봄의 이주노동자는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노인 돌봄에 특화된 비자 프로그램 등은 부재함.

- 노인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이미 체류 중이고 직업 선택이 자유로운 외국인으로 중국 동포가 다수를 차지함.
- 비공식 영역(요양병원 간병인 등)에서 이주노동자(대부분 중국동포) 비중이 높고, 공식 영역인 장기요양제도 요양보호사 중 이주노동자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함.
- 최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노인 돌봄 영역에서도 이주노동자 경로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024년 유학생 등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외국인 범위가 확대됨.

④	워크숍 “Long-Term Care Policies in East Asia and Europe - After-Conference Workshop” (2일차)
일 시	2025.03.28.(금) 9:20 ~ 17:30
장 소	대만 타이베이(WiSmart Convention Center)
참석자	Simone Leiber(University of Duisburg-Essen, 독일), Li-Fang Liang(National Dong-Hwa University, 대만), Reiko Ogawa(Chiba University, 일본) 외

워크숍(2일차) 구성

구분	활동	좌장
09:20-09:30	개회	Yueh-Ching Chou (TW); Heinz Rothgang (GER)
09:30-10:40	소그룹 토론 • 구체적인 향후 협력 방향 논의	Johanna Fischer & Meika Sternkopf (GER)
10:40-10:50	휴식	
10:50-12:10	전체 토론 및 결론 • 소그룹별 향후 계획 발표 • 요약 및 결론 발표	Johanna Fischer & Meika Sternkopf (GER)
12:10-13:30	점심	
13:30-17:30	NGO 방문 (관심 주제에 따라 1개 NGO 방문) • Taiwan Alzheimer’s Disease Association (dementia care) • Taiwan Association of Family Caregivers (family care and community care) •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 (migrant care workers) • Taiwan Tongzhi (LGBTQ+) Hotline Association (care for LGBTQ+)	

워크숍(2일차) 주요 내용

○ 소그룹 “Migrant Care”의 토론 내용

- 장기요양의 이주 돌봄노동자 관련 비교연구의 틀을 논의
- 장기요양제도의 이주노동자 현황, 장기요양제도 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및 훈련 체계, 이주

정책의 관련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책 등

- 소그룹 참여자를 중심으로 Migrant Care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정기 운영 예정

○ NGO(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 방문

-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의 발표: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의 약력 및 활동, Migrant Care Worker 도입 이후 인권 관련 이슈와 쟁점, Migrant Care Worker 관련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의 활동과 연대 현황
- 질의응답 및 논의: 독일, 일본, 한국의 정책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대만의 Migrant Care Worker 관련 질의응답,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의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⑤	귀국
일시	2025.03.29.(토)
장소	대만(타이베이) 출발, 대한민국(인천) 도착

〈단체 사진〉



〈세션 사진〉

3월 26일
국제 컨퍼런스의
세션 참여



東亞和歐洲
照顧政策的比較：
當代挑戰與未來展望
臺灣照顧學會第一屆年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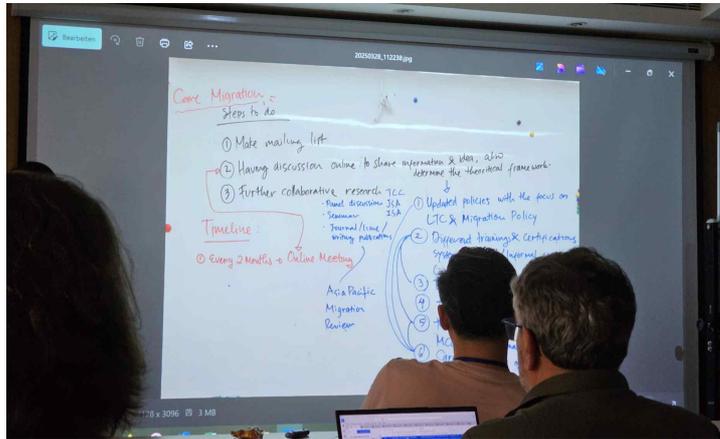


長照與移工勞動力

Yuhwi Kim 主任從民間回應與照顧監管的視角，回應日本長照制度當前面臨的挑戰。若允許未通過考試的外籍照顧者進入機構工作，是否引發民間對照顧品質的疑慮；若機構無力提供訓練，政府是否有介入及支持機制。此外，他也提問，當「技能實習制度」與「特定技能制度」並存，是否造成身分轉換與勞動階層化。最後，照顧人力短缺，不能僅依賴制度鬆綁，更要正視勞動條件不佳與照顧勞動的分化，才能提升服務品質。

<소그룹 토론 및 발표 현장>

3월 27~28일
워크숍 참여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의 발표 현장>



3월 28일
NGO 방문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에서 구입한 서적>

